

삼성디스플레이, 천안공장 화재사고

12월28일 14시45분경 OLED 패널 배기시설에서 ... 재산피해 약 1억원

12월28일 오후 2시45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공장 옥상에 설치된 배기시설 4개를 태워 소방서 추산 1억2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5분만에 진화됐다.



화재가 발생하면서 공장 안에서 근무하던 일부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배기시설은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등을 제거하는 장치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공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설치된 배기장치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설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현재 공장

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12/29>